

뉴질랜드의 목양산업(1)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양이 들어 온 것은 1773년 5월 20일 쿡(Cook)선장에 의해서다. 쿡 선장의 이름은 제임스(James Cook)로서 해군 수병으로 입대하여 여러 가지 공로를 쌓은 바람에 29세에 항해장(장교 대우)이 되었다가 38세 때에 인데버(Endeavor) 호라는 큰 배의 선장이 되어 뉴질랜드를 발견하고,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발견함으로써 뉴질랜드나 호주에 가면 지금도 캡틴 쿡(Captain Cook)이란 이름의 기념물이 많이 남아 있다.

쿡 선장이 처음으로 뉴질랜드에 갖고 들어간 양은 수컷과 암컷 각 한 마리씩이었는데, 이들은 3일간 살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는 선교사, 포경업자 혹은 개척민들이 조금씩 데리고 온 것으로 호주에서와 같이 많은 양이 이주해 왔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184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교적 많은 양들이 입식되었고, 뉴질랜드의 개척이 진전되면서 증가되어 오늘날의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크로스브레드 양모(crossbred wool)의 대국이 되었다. 초기에는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에서 갖고 온 메리노종이 주체가 되었는데, 건조지대가 적은 뉴질랜드에는 잘 맞지 않아서 영국에서 들어온 링컨종이 환경에 잘 적응하여 점차 늘어났다.

1814년 웰링턴 근처 해안에 영국으로부터 기독교 선교단이 상륙하였다. 이들 중에 마스덴(Marsden)이란 선교사가 양을 데리고 왔고, 이때부터 뉴질랜드에서는 목양이 시작되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북섬 끝에서부터 남섬 끝에 이르기까지 목양산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북섬이 11만 4천 km², 남섬이 15만 km²로서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22만 km²보다도 더 넓은 땅이지만, 인구는 불과 450만 명 정도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국토로 인해 기후조건이 달라서 사육되고 있는 양종도 여러 가지다.

주요 목양지역은 그림과 같이 남섬의 산악부, 남섬의 구릉부, 북섬의 암릉부(岩陵部), 북섬의 구릉지, 북섬의 고기용 양 사육지, 남섬의 고기용 양 사육지, 남섬의 곡물과 고기용 양

공존(共存)지대, 종양 사육지 등이다.

1840년에서부터 60년에 걸친 1차 목양 발전기에 뉴질랜드에는 영국으로부터 잉글리쉬 레스터(English Leicester), 보더 레스터(Border Leicester) 롬니 머쉬(Romney Marsh), 링컨(Lincoln), 슈롭셔(Shropshire), 사우스 다운(South Down) 등의 양이 들어왔다. 그리고 메리노종과 영국의 장모종과의 교배가 진행되었다. 이 결과로 나타나 고정된 것이 뉴질랜드 하프 브레드(Halfbred)와 코리데일(Corriedale)종이다.

당시는 양모가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었기 때문에 양모 생산성이 큰 링컨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변화하게 된 것은 1882년의 '냉동선의 출현'이었다. 멀리 떨어진 유럽으로 양고기를 수송할 수 있게 되면서 양모와 양고기의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품목으로 대두된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경에는 영국종인 롬니 머쉬가 가장 인기있는 양이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따금 벌어지는 구제역이 목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이 롬니 머쉬종은 구제역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습지에서도 잘 견뎌내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성장이 빠른 사우스 다운 종도 양고기용 양으로서 주목을 받았으나, 현재는 양고기용으로는 도싯 다운(Dorset down), 햄프셔(Hampshir), 서포크(Suffork)종 등이 고기용의 주력이 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에 걸쳐 롬니의 교배종으로 페렌데일(Perrendale)이나 쿠프워드(Coopworth)라고 하는 뉴질랜드 독자적인 고기와 양모 겸용종이 탄생한다. 그리고 카펫 전용의 드라이스데일(Drysdale)종이 탄생한다.

뉴질랜드의 양도 1990년도에는 5천 8백만 마리의 양이 있었으나, 2011년 현재는 3천 1백만 마리로 줄었고, 앞으로도 한참 더 줄어듦 것 같다. ♣ (공석봉)



<뉴질랜드의 목양지대>